



Village Hotel 18st
마을호텔
18번가



국토교통부



정선군

정선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마을호텔 18번가

쉽지만은 않았을, 그래서 더욱 값진 "마을호텔 18번가" 이야기

고한18리가 걸어온 길은 센터가 걸어온 길과 궤적을 같이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처음 골목길에 하늘기획이 들어서면서 작은 변화의 몸짓 시작되었고, 이어 이음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고한18리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농담삼아 하루 종일 개 5마리와 노인 3명이 다니던 골목길에 밤늦게 까지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언제할지 백가쟁명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누구랄것 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고한18리 마을만들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유영자 이장과 김진용 사무국장이 주도적으로 골목길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가 인력을 지원하고 고한읍과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전문가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호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 국토교통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하여 마을호텔 시범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고한18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 등 크고 작은 상을 받게 되었고, 언론에도 주목받는 장소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국내 최초로 '골목길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아름다운 골목길 재생의 메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사이 견학을 가는 동네에서 견학을 오는 동네로 바뀌었고, 외부인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발전의 토대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년 초 문을 열게 될 마을호텔 18번가는 더욱 부푼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고한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의 결과물을 보고 돌아갑니다. 또한 언론은 성공의 모습만을 대대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 자리잡은 주민의 절박함, 절실함, 눈물, 땀을 함께 생각해보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김연아의 아름다운 피겨스케이팅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었을 인고의 시간, 갈등의 시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기억했을 때 그녀의 연기는 더 한층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을호텔 18번가 사례를 통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서 평범한 진리지만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을 발전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 우연이라고 하지만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만이 갖을 수 있다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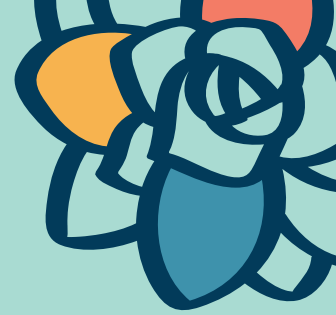
쉽지만은 않았을 그래서 더욱 값진 고한 "마을호텔 18번가"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나는 마을을 만들고 마을은 나를 만듭니다."

2019. 12.

이용규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장

Village Hotel 18st
마[★]크호텔
18번가.



고한 18번가 마을만들기 이야기



1950년대 고한읍

1960년 이전, 고한읍은 산에 불을 놓아 농사를 짓던 화전민(火田民) 약 100여 가구가 모여 살던 작은 산촌마을이었다. 박정희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의 산업화, 근대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부 주도로 탄광개발이 시작됐다.



탄광개발과 마을의 형성

급속한 탄광개발로 인해 고한과 사북은 전국 팔도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넘쳐났고, 지역인구는 80년대 들어 무려 6만명에 육박했다. 지역경제는 호황을 맞았고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유행어도 이맘때 생겨났다.



두겹 하늘을 이고 살아가던 산업전사

우리나라의 탄광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탄맥을 찾아 캐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노동여건은 매우 열악했다. 석탄생산이 한창이던 80년대에는 연간 200여명이 탄광사고로 사망할 정도로 안전은 뒷전이고 생산량 향상에 몰두했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1961년 설립되어 2001년 폐광할때까지 40년간 고한지역 경제를 떠받쳐 왔다. 한때 종업원 3,000명을 고용하며 사북 동원탄좌와 더불어 국내 최대의 민영탄광으로 성장했다. 지금은 석탄 대신 문화를 깨는 "삼탄아트마인"으로 탈바꿈했다.

연탄需要 8년새 80% 감소

86년 67억개에서 지난해 13億개로
탄광도 47년 148곳서 26개만 남아

우리의 경제성장과 흐름을 같이 해 온 「성장시대의 딸깍」인 연탄이 빠른 속도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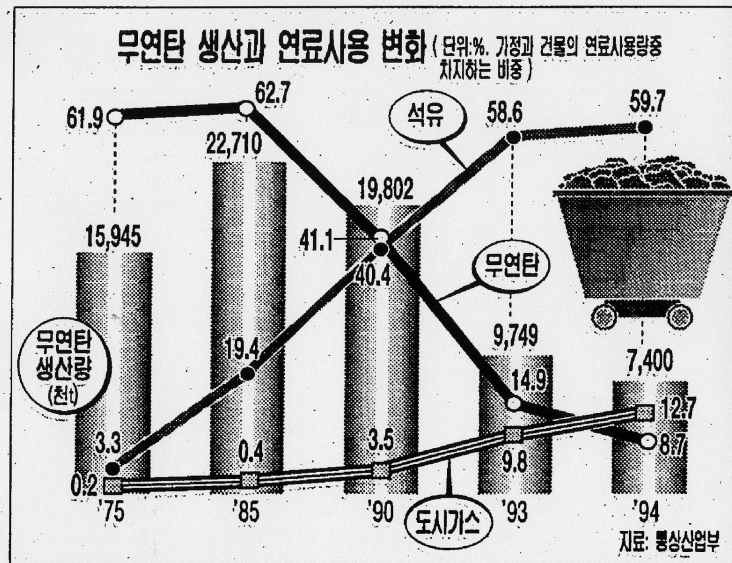
소득이 높아지고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석유나 도시가스 등이 나오면서 연탄의 역할이 줄어 이제는 전기나 도시가스에도 뒤지고 있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연탄을 쓰는 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28.3%인 2백40만 가구로 연간 사용량은 13억개로 집계됐다.

연탄 소비는 86년 7백59만 가구(전체 가구의 79%)에서 67억개를 사용한 것을 점적으로 줄어들어 8년새

은 문을 닫고 경제성이 있는 탄광을 육성하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광복 2년뒤인 47년 1백48개(남한 기준)에 달했던 석탄광이 지난해는 26개로 줄었으며 올해는 다시 10개 정도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연탄 생산량이 5백90만 t으로 한창 생산이 많았던 80년대 후반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재고는 올해 계획한 생산량보다 많은 6백79만 t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이나 건물에서 사용한 에너지 가운데 연탄과 석유류가



폐광정책과 무너지는 지역경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불편한 연탄 대신 석유와 가스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는 석탄생산 감소로 이어졌고 급기야 정부는 폐광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6만여명에 달하던 지역인구는 정책시행 3년만인 1993년에는 2만여명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檀紀 4328年) 3月 4日 土曜日 (陰曆 2月 4日)

「炭田 개발특별법」 제정

정부·旌善 주민대표 협상 요구조건 완전 타결



3일 정선군 사북읍사무소에서 열린
대체회의에서 탄광지역 개발대책방안
에 합의한후 朴雲緒동상산업부차관과 沈乙輔고한·사북지역실리기 공
동추진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減炭항의농성 5일만에 자진해산
도내 탄광지역 개발을 다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또 사북·고한지역을

비롯 탄광지역들이 개발
촉진지구로 조기 지정되
며 연건 4백만 15백만
t 규모의 석탄생산량

開發 촉진지구로 석탄생산 年 5백

폐광지개발 투자설명회

30대그룹·외국 투자社 1백여개업체 초미관심



강원랜드 출범 23일 정선 고한석탄회관에서 열린 강원랜드출판식. 우로부터 洪寧信
태백시장, 許南도의회의장, 金源昌정선군수, 金振鎭지사, 朴泰榮신자부장관,
徐丙熙강원랜드대표, 朴佑炳국회의원, 金日東삼척시장, 金泰洙영월군수.
<金南鎭기자>

「旌善」폐광지역개발민
자유치 설명회가 23일
정선 현에서 열려 탄
보상대여 면할고 있는
고한가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

마을호텔
18번가

폐광특별법 제정과 강원랜드 설립

대체산업을 요구했던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정부는 1995년 폐광 특별법을 제정했다. 또 이 법률에 근거해 내국인카지노 운영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1998년 설립되었다.



강원랜드의 성장과 발전

강원랜드는 2000년 스몰카지노 개장을 시작으로 2003년 메인카지노, 2005년 하이원골프장, 2006년 하이원스키장, 2018년 워터월드 비롯해 특급호텔과 콘도를 갖춘 국내 굴지의 리조트기업으로 성장해 폐광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마르호텔
18번가

하이원리조트, 연간 관광객 600여만명 방문

하이원리조트는 카지노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국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의 95%이상을 내국 인카지노 의존하고 있는데다 내국인카지노의 독점권 역시 한시적이기 때문에 미래환경이 불확실하다.



정선군 관광산업의 발전

폐광이후 20여년간 정선군은 각종 기금과 사업비를 활용하며 자생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정선아리랑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한편 정선5일장, 레일바이크, 화암동굴 등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성장 발전시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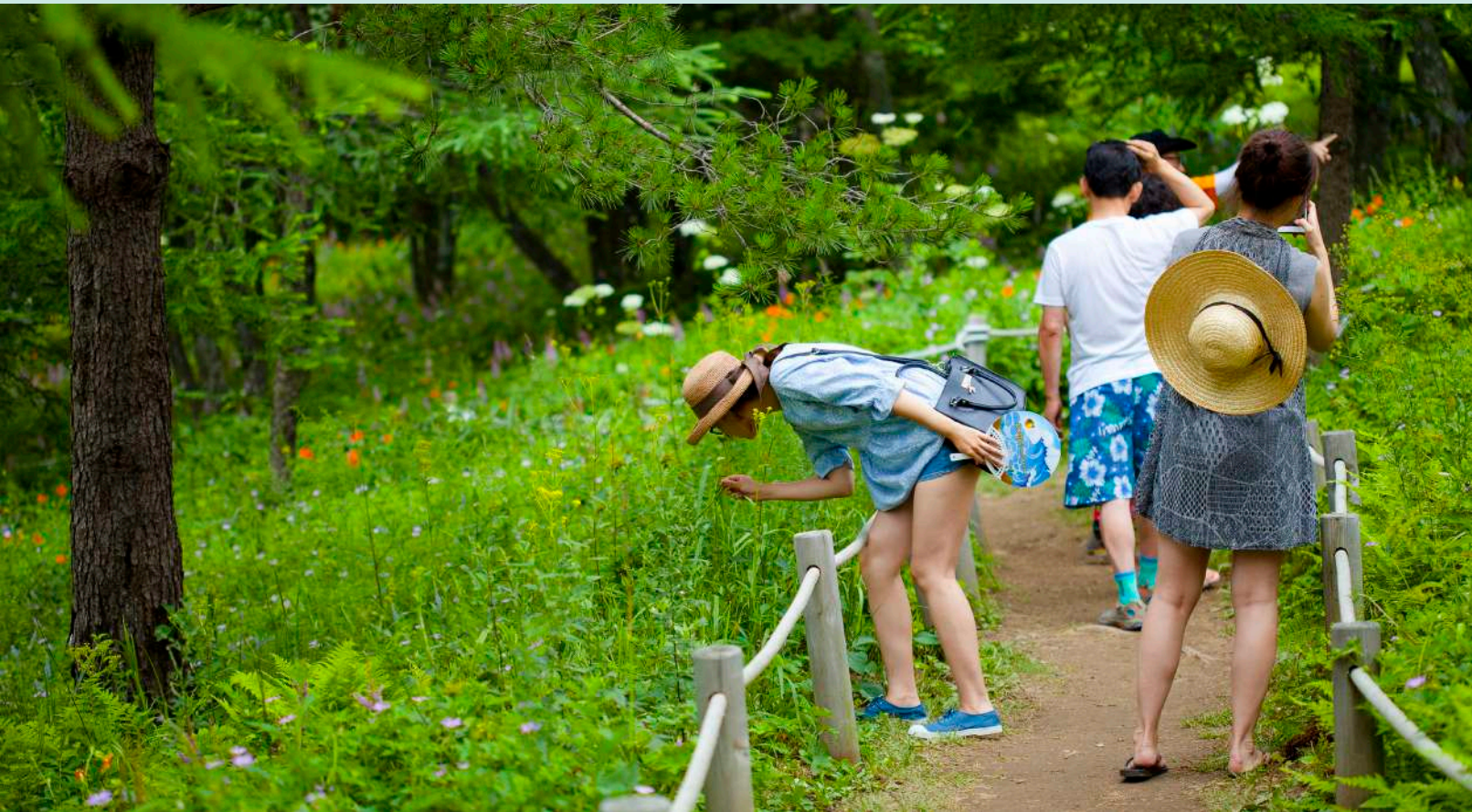
정선 민둥산 역사군락지

해발 1000m 이상의 완만한 산정상에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짓던 산, 그래서 이름도 "민둥산"이라 불렀지만 나무들이 잘려나간 빈자리에서 역새가 군락을 이루며 전국적인 역사관광지가 되었다.



고한 함백산야생화축제

폐광이 완료된 이후 이렇다할 축제하나 없었던 고한읍에 김수복 읍장이 부임하면서 함백산 만항재 일원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야생화축제를 제 안하였고, 2006년부터 주민주도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마을엔 사람이 없다

폐광이후 20여년간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우수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인프라가 조성되었지만, 마을엔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었다.

마을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에 근처 관광지까지 왔어도 마을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빈집에 찾아든 우연 - 하늘기획 이전

2007년 10월 오래동안 비어있던 건물을 고한시장에서 출판업을 하던 하늘기획이 매입하여 새단장하고 이전했다. 도시재생에 관심이 컸던 김진용 대표의 하늘기획 건물을 마을만들기의 첫번째 사례로 삼기 위해 내외부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다.



또 하나의 우연 - 이음플랫폼

하늘기획이 이전하고 얼마되지 않아 강원도 공간재생사업에 선정된 이음플랫폼이 18번가 골목에 입주했다. 이 건물 역시 5년동안 비어 있던 폐가나 다름없던 빈집이었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된다 - 마을만들기위원회 발족

불과 서너달 사이에 마주보는 두채의 빈집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자, 희망이 없었던 주민들 사이에서도 묘한 기대와 술렁거림이 느껴졌다. 때마침 이장으로 선출된 유영자 이장은 하늘기획 김진용 대표를 마을총무로 위촉하고 마을만들기위원회를 발족했다.



마을 명칭이 왜 "18번가"일까?

마을만들기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모이거나 함께 일할 기회가 많아졌다. 회의중 "십팔리"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면서 어감이 불편해 마을명칭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다.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무언가를 뜻하는 "18"번이라는 숫자에 골목을 뜻하는 "번가"를 합성했다.



보고 듣고 배우다

마을만들기위원회 발족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재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발전"을 "철거와 재개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유명한 골목여행자인 연남동과 성수동길을 둘러보며 마을 특색을 살린 "재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감하게 됐다.



마을호텔
18번가

"배움"보다 더 소중한 "소통"

사람들은 마을 또는 골목에 대한 기대와 로망이 어느정도 있다. 이를테면 이웃간의 정과 나눔 같은 것인데, 하지만 현실은 아파트단지나 마을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마을만들기를 위해선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이런 이벤트는 그런 기회가 되어준다.



18번가의 미래비전을 발표하다 - 마을만들기 선포식

18번가의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18번가 마을만들기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가 후원했으며, 고한음과 (재)3.3기념사업회가 함께 수립한 "18번가 골목길 경관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주민이 준비하고 실행한 첫번째 마을행사

마을이 생겨난 이후 가장 큰 행사였다. 행사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실행해보는 첫번째 경험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있어도 예산이나 실행주체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18번가의 현실이 그러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었던 3.3기념사업회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다. 주민화합을 위해 윗놀이대회도 하고, 지저분한 거리를 청소하





회의만 하다가 헤어지는 마음들! 함께 일할수록 회복되는 공동체!

일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처음 몇달동안 우리가 한 일이다. 아침이 기대될만큼 매일 매일 새로운 일들이 18번가에서 벌어졌다. 청소나 꽃이라도 심으니 모이게 되고, 서로 이야기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말로만 들던 공동체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마을호텔
18번가

봄나물 한상에 터지는 웃음꽃

산에 들에 지천인 봄나물을 뜯어와 나눠 먹기도 하고, 김장철엔 서로의 김치를 나눠 먹는다. 받은 김치통엔 과일을 담아 답례하고 마을엔 이웃간의 정이 조금씩 쌓여 갔다.



일방통행 표지판 그리기

18번가 골목길은 원래 일방통행 도로였지만, 표시가 없어 역주행하는 차량이 매우 많아 노약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 지역작가인 최승선 화가의 도움을 받아 일방통행 표시를 몇군데 그려 넣으니 역주행 차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어지러운 전선줄 정비하기

광케이블 지하매설 이후에도 각 회사마다 설치했던 통신선을 철거하지 않아 골목길이 매우 지저분했다. 무려 두달동안 각 통신회사 별로 철거를 요청해서 대부분 치워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주민이 가만 있으면 사업자들은 자기들 편한대로 마을을 함부로 대한다.



주민 스스로 골목정원을 만든다

골목길과 파출소 자투리땅을 가로막는 거대한 게시대를 철거했다. 쓰지도 않으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된지 꽤 오래됐다. 게시대에는 고한읍 시설물임으로 읍장님에게 허락을 구하고, 파출소 담벼락은 파출소장님에게 허락을 받고 주민들이 직접 철거했다.





지역아카데미, 18번가 골목길에서 열다

지역아카데미는 대표적인 지역사회단체인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가 2007년부터 12년동안 매년 개최하고 있었던 주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주민교육이 꼭 필요했던 시기였기에 공추위에 협조를 구하고 한해만큼은 18번가에서 아카데미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아카데미, 18번가 골목길에서 열다

사업예산은 공추위가 지원하는 대신 아카데미의 계획과 실행은 전적으로 마을에서 진행했다. 공추위는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음으로 18번가의 상황에 맞게 강연일정을 수립하고 강사진을 구성했다.



마을축제 같은 골목길 아카데미

실례가 되더라도 강사님들에게 가급적 강의를 짧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도시재생 또는 사회적경제 같은 주제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인데다 공부하기를 즐기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주 만나고 친해지는데 목표였기에 콘서트나 영화감상도 하면서 마을축제처럼 진행했다.



마을호텔
18번가

마을회관이 없어서 골목길에서 판을 펼치다

차량이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에서 주민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외부인들은 꽤 흥미로워했다. 사실 18번가엔 그 흔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하나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골목길에서 아카데미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주인이 직접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례를 만들다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 많은데 할수 있는 예산이나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했다. 골목길 경관개선을 위해선 첫번째 리모델링 사례를 만드는 일이 중요했다. 우선 마음 맞는 주민들끼리 300만원의 재료를 모았고, 가장 시급한 "정씨 할머니" 집을 선택했다.



주인이 직접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례를 만들다

정씨 할머니 집 한채를 외벽만 리모델링하는데도 무려 한달이나 걸렸다. 예산도 부족했지만 건축을 해본적 없는 주민들 입장에서선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일을 하는동안 건축전문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어렵사리 정씨 할머니 집을 리모델링한 후 예산과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해 두달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당해 계획한 10여채의 노후주택 개선계획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다. 이때 지근배 고한읍장님이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한 집당 4~5백만원 정도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로 한것이다.



주민과 행정의 협업이 시작되다

부임한지 3년차였던 지근배 읍장은 "야생화마을 추리극장"이라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중이었으나, 마을경관 개선분야 사업 실적이 미흡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18번가의 변화와 역동성은 그를 놀라게 했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협업이 시작됐다.



주인이 스스로 디자인하고 결정하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작업

대부분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디자인은 출판 일을 하는 김진용 마을총무가 구상했다. 초안을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수정사항을 반영한 뒤, 시공전문가와 협의해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작업시 집주인은 아이디어를 내는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누가봐도 중국집답게 · 국일반점

노후주택 리모델링 작업은 단순히 건물과 마을의 외관만 예쁘게 만드는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킨다. 내 집에 대한 자부심이 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은 이후 마을사업에 대한 동의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유집 노부부의 집을 따뜻하고 화사하게.

노후주택은 건드릴수록 일거리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주택의 상황에 집주인의 니즈에 따라 예산도 천차만별이다. 그렇다고 다른사람과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주민은 없었다. 일을 집행하는 마을 리더들 집들은 손도 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리더만큼은 욕심을 버려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색채와 컨셉의 중요성을 인식하다

2018년 리모델링작업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무조건 예쁜 디자인이어야 했다. 마을의 색감이 워낙 어두웠기 때문이었지만 2019년부터 새롭게 마을 비전으로 자리잡은 마을호텔 컨셉에 어울리는 색채와 디자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집주인 할머니가 원하는 색으로..

때로는 디자이너가 의도한대로 시공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다. 3대가 함께 사는 이 주택은 할머니가 워낙 원색을 좋아하셔서 진한 핑크색을 사용했다. (나는 옷도 원색만 입으니까~ 우리집 색은 진한 핑크색으로 해줘야 돼!)



연탄구이 전문점에 광부들이 타고다니던 광차를 포토존으로..

구궁탄구이는 고한에서 알아주는 맛집이다. 성수기 시즌에는 번호표 받고 길게 줄서서 기다리는 유명한 고기집이다. 그래서 식당 사장님은 손님들이 기다리면서 사진도 찍을수 있게 광차 제작을 의뢰했다. 아이디어만 낸게 아니라 시공까지 직접 참여했다.



보기드문 대리석 건물에 보기흉한 말통들은 왜 있을까?

연세가 많으실수록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특별하다. 자신의 평생의 업적이기 때문에 애지중지 하신다. 보기흉한 빈 말통들도 그래서 가져다 두신건데 자동차가 주차하다가 대리석 벽면을 긁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주인 할아버님과 상의 끝에 말통이 있던 자리에 화분대를 설치했다.



자기 집은 자기 스스로

집주인 할머니가 우리집은 언제 해주냐며 몇번을 찾아오셨다. 주택의 규모가 커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거 같아 걱정을 했더니 본인도 부담하시겠다고 나서신다. 집주인이 나몰라라 하는 집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만 적극적인 집은 더 잘해주고 싶어진다.



꽃을 유난히 사랑하시는 권씨 할머니를 위한 디자인

처음부터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 앞집 할머니 집이다. 내가 꽃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다면 마을 화단가꾸기에 앞장서신 권씨 할머니를 위해 화분거치대를 많이 설치해드렸다.



섬마을은 최대한 깔끔하게..

섬마을은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게 너무 많았다. 지저분한 타일을 닦아내고 필요 이상으로 거대한 돌출간판도 제거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광고시트지 대신 깔끔한 메뉴판을 설치하고 기름때에 찌든 환풍기에 가림막도 설치했다.



자투리정원이 정답은 아니다

집앞 화단은 집주인이 관리할때 유용하고 쾌적한 공간일 수 있다. 다른 곳에선 일부로라도 짜투리정원을 만들었지만 이 곳은 제거하고 보도블럭을 깔았다.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도저히 화단을 관리할수 없다며 요청해 왔기 때문이었다. 관리하지 않는 화단만큼 보기싫은 것도 없기에 깔끔하게 정리했다.



마을호텔
18번가

집주인이 갑! 후회도 집주인 뒀!

이층 하얀 타일에 때가 묻어 있어 페인팅으로 깔끔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집주인 아저씨가 그대로 두길 원했다. 본인이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세월의 때가 쉽게 사라질리 없다. 결국 지금은 페인팅할걸 하시면서 후회하신다.



사진 전시회도 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돌아온 청년, 이해진 작가의 첫번째 사진전시회는 로타리클럽 외벽에 한치각 나무로 짠 액자로 소박하게 열었다. 고한로타리클럽 1층 공간을 18번가 미술회관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협의중이었는데 사진전시회가 이 분들이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듯 싶다.



18번가에 마을회관이 생겼다

건물주인 고한로타리클럽이 1층 공간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승락해주었다. 마을은 관리책임과 운영비를 부담기로 하고, 정선 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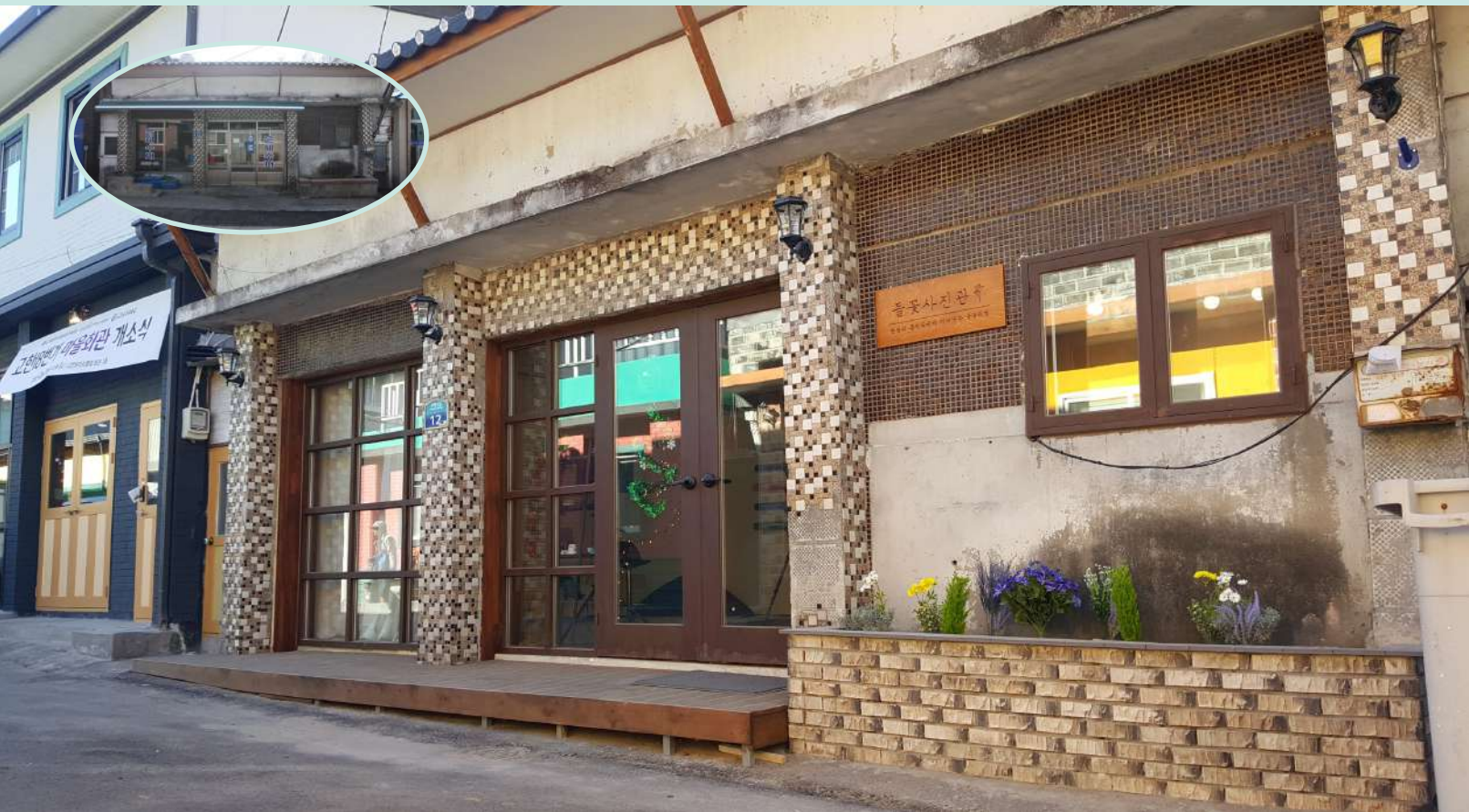
마을회관도 카페처럼 만들수 있다

마을회관은 부녀회가 공예수업을 진행하기 편리하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한편, 견학단이 자주 방문하고 있었기에 워크숍과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을회관과는 느낌이 달라서 카페인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다.



주민이 직접 만들어서 더 사랑스러운 마을회관

행정이 마을에 공공시설을 지어주고 관리와 운영이 어려워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8번가 마을회관은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필요에 의해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더 활용도가 높고 정이 가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돌아온 청년! 돌꽃사진관을 창업하다

이혜진 작가는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잠시 쉬려고 고향에 내려와 있던중 18번가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 강원도 폐공간 공간재생사업에 선정돼 18번가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돌꽃사진관은 원래 동네슈퍼를 하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5년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18번가를 널리 알리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들꽃사진관

이혜진 들꽃사진관 대표는 사진관 사업뿐 아니라 18번가의 변화를 외부에 알리는데도 적극적이다. 또 사진을 잘 찍고 싶은 마을 주민들에게 사진찍는 법을 강의하며 마을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18번가 짜장면데이 - 국일반점 재능기부

어느날 국일반점 사장님 부부가 찾아오셨다. 두 분도 18번가의 변화에 함께 하고 싶었지만 식당 특성상 시간내기가 어려워서 늘 미안했다고 하시면서, 짜장면데이를 제안하셨다. 1달에 3번 쉬는 정기휴일 중 하루를 마을을 위해 재능기부하고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마을호텔
18번가

18번가의 알뜰 콘텐츠가 된 짜장면데이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은 18번가 짜장면데이가 있는 날이다. 이 날만큼은 짜장면이 평소의 반값이다. 보통은 2,500원이고 곱빼기는 3,000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때로는 무모한 도전이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마을 부녀회도 힘을 보태다

18번가의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부녀회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이 심어놓은 화분에 그림을 그린다던가, 우체통이나 크리스마스 장식, 꽃 누루미 공예품 등을 서로 배우며 마을 곳곳을 예쁘게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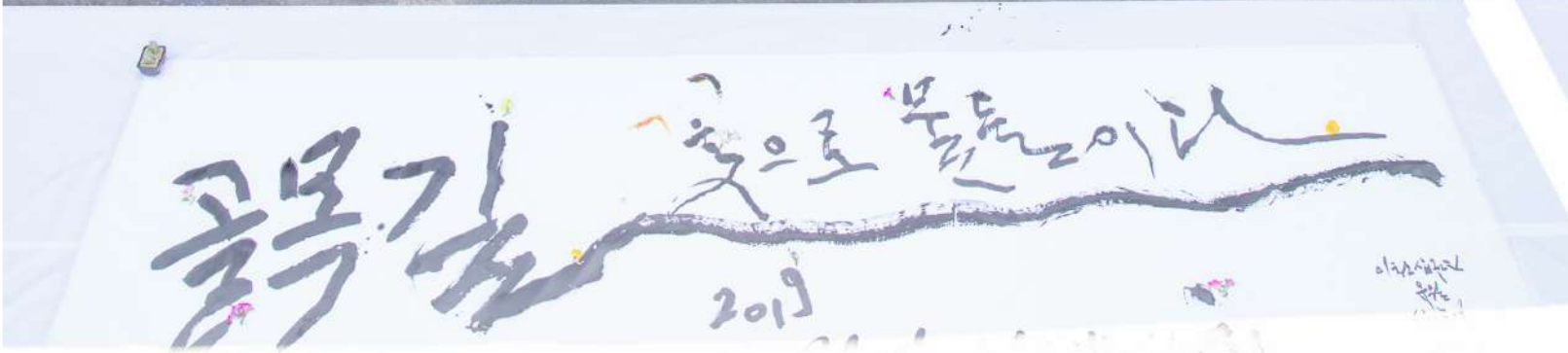
마을에 끈대가 많으면 젊은 사람들은 숨어버린다

젊은사람들은 아파트처럼 독립된 공간에 살고 싶어하고 남에게 간섭받는걸 질색한다. 젊은사람들은 마을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키려하기 보단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을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를 시작하다

골목길정원박람회를 시작하며 글씨예술가 강병인 선생을 모시고 붓글씨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강병인 선생은 영화, 드라마와 책, 광고와 상품, 상표 이름 등에서 표정이 있는 글씨, 자연을 담은 글씨들을 선보여 왔다. 승례문 복원공사 가림막에 쓰였던 글씨도 강병인 선생의 작품이다.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 골목길정원박람회로 꽃 피우다

마을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선 주민주도가 핵심이듯 골목에서 정원박람회를 하는 일도 행정이 전면에 나서면 힘들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지근 배 읍장은 김진용 18번가 사무국장에게 정원박람회 준비를 부탁했다.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 골목길정원박람회로 꽃 피우다

김진용 국장은 정원박람회는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만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사업 경험이 풍부했던 김용일 세눈컴퍼니 대표를 총감독으로 모시고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주도 골목길 정원박람회 준비해 나갔다.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 골목길정원박람회로 꽃 피우다

김용일 총감독을 중심으로 행정과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모여 사무국을 꾸린 가운데 사업의 범위를 18번가를 포함한 5개마을로 확대했다. 하지만 18번가는 지난 1년동안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경험이 있었기에 정원박람회의 시너지가 크게 났지만, 주민주도 경험이 부족했던 나머지 4개 마을은 어려가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 골목길정원박람회로 꽃 피우다

박람회 주최측이 제공한 꽃과 식물, 화분거치대 등과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사용하던 다양한 소품들이 화분으로 다시 태어나 골목길 곳곳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프로가 조성한 듯 보이기도 하고 아마추어가 만든것 같기도 한 풋풋한 골목길정원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생활용품이 독특한 화분으로 변신하다

버려진 기타와 신발도 화분이 될수 있고, 식당에서 쓰던 녹슨 화로나 손님이 찾아가지 않은 세탁소의 청바지도 멋진 조형물이고 소품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비록 세련되거나 반영구적인 시설물은 아니었지만 주인들은 스스로의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시켜 갔다.



한차원 업그레이드 한 구공탄구이 포토존

식당 사장님과 직원들이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정성을 다해 데코레이션을 했다. 자기가 직접 만들고 심었기에 뿌듯하고 더 나아지게 만든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주인이어야 한다.



관광객과 주인이 어울어지는 골목길정원박람회

행사기간중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재미를 더했다. 특히 인터넷으로 생방송되었던 '정원사의 수다'와 골목길 콘서트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마을호텔
18번가

OR코드에 마을 스토리를 담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집집마다 얹힌 사연을 보고 들을수 있수도 있다. 김용일 총감독은 정원박람회를 통해 오래된 골목길에서 최첨단 시스템을 구현해 재미를 더했다.



부끄럽고 떠나고 싶었던 골목길이 계속 살고 싶은 마을로 바뀌다

불과 2년전까지만 해도 18번가는 고한에서도 가장 소외된 동네였다. 골목길엔 버려진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해만 넘어가면 어둡고 무서워서 사람들은 큰 길로 피해다녔다. 그랬던 골목길을 이제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고 있다. 18번가에 사는걸 부끄러워하고 떠나고 싶어했던 마을사람들은 오히려





겨울을 잊은 봄꽃들이 18번가 골목길에 활짝~

2019년 12월 24일부터 13일간 LED야생화 공예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고한 골목길정원박람회 이후, 야간 또는 동절기에 허전해진 골목길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고한읍이 전통한지공예 명장 광화숙 선생을 모시고 주민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진행해 왔다. LED야생화공예 전시회는 특정 전문가가 제작-





폐공가를 골목정원으로 만들다

마을 중간쯤 10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집 두채가 있었다. 집주인 동의를 얻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골목정원을 만들기로 했다. 폐가옥 철거는 고한읍에 요청하고 정원조성은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에 부탁했다.



폐공간을 예쁜 골목정원으로 만들다

주인이 사는 공간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를수 있다. 민원 제기의 여지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항상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이 공간을 만들기까지 참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행정과 센터에 민원이 가지 않도록 했다.



강원도 공간재생사업 선정 - 공예카페 "수작" 조성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재생사업은 빈집이 유난히 많았던 18번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음플랫폼을 시작으로 들꽃사진관과 카페 수작 등 공간재생사업이 하나의 골목에서 집중될 수 있어서 18번가는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다. 단순히 물리적 환경변화만 가져온





국토부 소규모뉴딜사업 선정 - 마을호텔 객실 1호점 조성

패적인 객실은 마을호텔 18번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다. 사업추진을 위해 유영자 이장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5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시설운영은 마을주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맡기로 하고 조합설립과 운영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작·우 조합(영문만해당)

Village Hotel 18st

슬로건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꽃

Village Hotel 18st
마을호텔
18번가

마을호텔18번가 BI 표준화 규정집
Village Hotel 18st Brand Identity Standards

마을호텔
18번가

마을호텔 18번가의 브랜드가 탄생하다 - 마을호텔 18번가의 브랜드 디자인은 (주)세인트가 맡아 진행했다. BI 제작에 사용된 글꼴은 대한민국 최고의 글씨예술가 강병인 선생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였다. 야생화마을 고한의 정서에 맞추어 도시적 세련미 보다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정신과 사랑스런 감정이 녹아있는 감성을 전달 기반으로 디자인하였다.

2019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최우수상) 수상

(고한 골목길 정원박람회 우수사례)



2018 균형발전박람회 사회적경제지역혁신대회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대상) 수상

(도시재생 협치시스템 구축부문)

고한18번가 전국대회를 휩쓸다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 관련 각종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며 18번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2 폐광촌 '마을호텔 프로젝트'

단기 435년 무술 10월16일 기미 한가래



위원장 고한18리 마을만들기위원회장 등 정선군 고한읍 고한18리 주민들이 마을호텔 로비로 변신할 골목길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다.



고한읍 18리, 오시면 오성급 서비스

한정! 정선군 '고한18번가' 가보니

폐광촌의 한 작은 마을 전체가 호텔로 변신 중이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18리다. 이 마을엔 주민들이 각자의 사업장과 집을 '마을호텔'로 변신시키고 있다. 기존 호텔은 커다란 한 건물 안에서 자고 먹고 마시고 놀라 하는 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이 마을호텔은 길과 골목을 따라서 호텔 시설이 마련돼 있다. 잠은 이 건물에서, 식사는 저 건물에서, 빨래는 또 다른 건물에서 하도록 한다. 물론 이들 시설은 가까이 붙어 있다. 주민들은 모든 서비스를 호텔급으로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22일 고한읍에서 만난 김진용(47) 고한18번가 마을만들기위원회 사무국장은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조금 엉뚱해 보이지만 주민 손으로 호텔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박집은 호텔 객실이 되고, 중국음식집은 호텔 레스토랑, 민집은 호텔 프런트, 마을 골목은 호텔 로비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인구 200명 남짓한 고한18리 주민들이 '마을호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허가지인 강원랜드 때문이다.

민박집은 객실·중국집은 레스토랑·강원랜드 조성 뒤 생계 잃은 마을 기존 상권 활성화 숙박 등 서비스 골목 전체가 '누워있는 호텔' 변신

폐광촌 '18번가의 기억' 잃어남까 주민들 발로 뛰어 빈집 등 새단장 부수고 새로 짓는 관 주도 방식 탈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 논길

이 마을은 강원랜드에 맞닿아 있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길은 넓어지고 인근에 새 건물도 많이 들어섰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가가 쇠퇴하고 인구가 줄어들었다. 주민 김혜선(46세)은 "지난 20여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강원랜드의 변두리로 전락해버린 마을을 되살리라고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1월 '마을만



폐광촌 작은 마을인 정선 고한읍의 주민들이 지역을 마을호텔로 변화시키기 위해 만든 실제 패턴도를 살펴본 후 골목길 곳곳을 꾸리고 있는 모습.

들기위회를 꾸렸다. 주민들은 서울 연남동과 성수동, 경마단지 등 전국의 유명한 동네와 마을을 찾아다니며 배웠다.

그 결과로 골목을 특색있게 꾸리는 '골목형 마을관광지'로 주제를 잡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도한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어서 예산이 없었다. 고한읍사무소 등 지역의 각종 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처음엔 공무원들도 마시려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이 앞장서 마을에 꽃을 심고 골목을 청소하는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소개하는 등

함께 팔을 걷고 나섰다.

초기 사업으로 주민들은 이 지역 출신 사진작가 전시회를 동네 주민 사무실에서 열었다. 또 2년 전, 주민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빈집으로 방치된 마을 슈퍼마켓을 강원도 공간재생 사업의 지원을 받아 고한읍 유일의 사진관인 '꽃사자관'으로 새단장했다. 이런 사업을 통해 하나둘 빈집이 채워지고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자 골목의 표정이 달라졌고, 주민들도 신이 났다. 이런 식으로 들은 폐광지 골목길에서 최근 1년 사이 빈집 4곳과 낡은 집 11곳이 새로운 공

간으로 태어났다.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거러·골목길 정비 사업은 이 단계에서 끝난다. 하지만 주민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아이타이는 고한읍 주민들과 골목아카데미 사업으로 인연을 맺은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자문위원들이 됐다. 문화예술 분야 자문을 맡은 영화제작소 '눈'의 강경환(49) 대표는 "주민들이 마을의 자원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원했다. 그래서 마을호텔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눈이 서 있는 호텔이 아니라 길거리에 펼쳐져 누워 있는 호텔을 만들자고 말이다.

마을호텔은 내년 6월 개장 예정이다. 하지만 주위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고한18리 주민들은 이 사업 제안으로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18 균형발전박람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연 '2018 도시재생 컨퍼런스'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비즈니스 분야 조언을 받은 사회적기업 세느컴퍼니의 강영일(49) 대표는 "마을호텔은 주민들을 내쫓지 않는 방식의 도시재생이다. 시당 주민은 계속 식당을 하면 되고, 민박집 주인은 계속 민박집을 하면 된다"고

언론이 주목하는 고한18번가

각종 전국대회 수상과 마을호텔에 대한 관심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로 이어지고 있다.



마글호텔
18번가

언론이 주목하는 고한18번가

2019년 8월 18일 KBS 다큐공감에서 50분동안 방영되며 18번가의 마을만들기 과정을 소개했다.



견학단 방문이 이어지는 18번가

언론이 주목하면서 타지역 견학단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견학단은 이미 사업에 선정되어 작게는 몇십억원 많게는 몇백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었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돈이 커보일수록 갈등요소는 증가하고 주민 주도보다는 행정과 시행업체의 역할





로컬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역재단(주민단체)



아트디렉터



지역예술가



도시재생 전문기관



지역주민



행정기관



사회적기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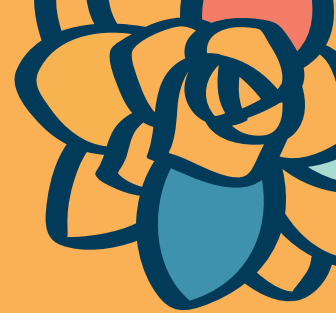
협업이 만들어낸 18번가의 기적

짧은 시간동안 18번가는 기적에 가까운 변화를 이루어냈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 도시재생은 반드시 주민이 주도해야만 성공할수 있다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주민은 사업예산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각자의 생업 때문에 시간내기도 어려운 미약한 존재다. 그러다보



Village Hotel 18st
마[★]크호텔
18번가.

마을호텔 18번가 아카데미



회차	일시	주제	강연자
1	8.29(목)	마을호텔이란 무엇인가?	강경환 영화제작소 눈 대표
2	9.5(목)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설립절차 등)	강경환 영화제작소 '눈' 대표
3	9.20(금)~21(토)	마을호텔 운영사례 견학 (공주시 봉황동)	권오상 봉황재 모던한옥 대표
4	9.27(금)	마을호텔! 홍보&마케팅 방안 (석항트레인스테이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명경화 오요리아시아 팀장
5	10.10(목)	마을호텔 18번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김용일 세눈컴퍼니 대표
6	10.18(금)	마을호텔 18번가! 시각적 일관성에 따른 환경의 중요성	김성중 세인트 대표
7	10.24(목)	마을호텔 18번가! 협동조합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김용일 세눈컴퍼니 대표

마을이 호텔이다. 마을에서 여행한다.

"마을이 호텔이 될수 있다고?"

2018년 여름 어느날, 강경환 '영화제작소 눈' 대표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진지한 얼굴로 "마을호텔" 이야기를 꺼냈을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묻고 있었다. 18번가에서 마을만들기가 시작된지 6개월도 안되었을 때니까 마을호텔이라는 개념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것 같다. 그보다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작업이 잘 풀리지 않아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마을호텔이 다시 소환된건 두어달 뒤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9월쯤이었다. 내부 갈등을 돌파할 이벤트가 절실했을 때, 김용일 세눈컴퍼니 대표님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사에 참가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해 왔다. 무조건 콜이었다. 이렇게 마을호텔은 18번가의 숙명이 되어갔다. 내부 갈등은 연이은 장관상 두개로 대충 덮어졌고 예산부족으로 애를 먹었던 노후주택 리모델링도 지근배 고한읍장님이 지원해주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마을은 깨끗지고 예뻐졌다. 그런데 그 다음 18번가의 미래는 뭘까? 하는 진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잠깐 유명해졌다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남기고 사라져가는 실속없는 마을관광지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을에서 잠도 자고 여행도 하고, 정선의 우수한 문화관광 콘텐츠들과 마을의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서 외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본다.

골목길정원박람회를 보러 왔다가 근처 고한시장 먹거리축제도 즐기고 아이들은 추리게임에 빠져 열심히 골목길을 돌아다니기도 한다. 저녁엔 18번가 마을호텔에서 잠을 청하고 아침엔 호텔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먹고난 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갯길을 차를 타고 올라 수려한 자연을 만끽한다. 내려오는 길에는 고즈넉한 천년고찰 정암사에

들릴수도 있다. 마을호텔에서 추천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하이원리조트 곤돌라를 타거나 삼탄아트마인을 관람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마을호텔 투숙객은 50% 할인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VIP가 된 기분이다. 시간 여유가 있는 손님이라면 정선오일장이나 레일바이크, 또는 동강의 절경도 즐길수 있을 것이다. 마을호텔의 인기는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방을 찾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 마을호텔 2호점과 3호점도 오픈했다.

마을호텔은 숙박업이 아니라 여행업이다.

정선의 우수한 문화관광콘텐츠들을 엮어내는 일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다. 지역의 자생력을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이고, 지속하기 위해선 돈벌이가 되어 하는데 국내여행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예쁘게 가꾼 골목에서 먹고 자고 보고 사고 즐기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호텔이 결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마을호텔을 중심으로 지역콘텐츠들은 더욱 생명력을 얻게되고 마을과 함께 여행산업은 성장하고 진화해 나갈 것이다. 불과 1년 사이에 마을호텔이라는 용어를 꽤 자주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누구도 해본적 없는 일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 섹션에서는 다시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18번가 주민들이 마을의 멘토이자 든든한 파트너로 활약하고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아카데미의 내용을 담고있다. 강의를 하나씩 진행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또렷해지고 있다. 주민들이 길을 잃지 않고 가야할 방향을 잘 안내해 주신 강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마을호텔이란 무엇인가? - 강경환 영화제작소 논 대표

첫번째 강자는 18번가에 마을호텔을 처음으로 제안한 강경환 대표가 맡았다. 강 대표는 마을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텔의 로비이며 엘리베이터이고 복도인 골목과 개인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객실, 레스토랑 등의 환경을 개선해야





협동조합의 이해와 설립 - 강경한 영화제작소 대표

첫번째 강의를 통해 마을호텔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 강경한 대표는 마을호텔 운영모델로 협동조합을 제안했다. 마을호텔은 단순히 객실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마을 상가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브랜드를 형성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만큼 주민 상가들이 연대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적





마을호텔 운영사례 견학 (공주시 봉황동) - 권오상 봉황재 모던한옥 대표

공주시 봉황동은 1960년대 중부지역 도시한옥의 외관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숙마을로 유명했던 구도심 봉황동은 1990년대 이후 신도심이 생겨나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후 공주시의 한옥지원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도로가 새로 닦이고 주차장 등이 조성됐다. 이 마을에서





마을호텔 운영사례 견학 (공주시 봉황동) - 권오상 봉황재 모던한옥 대표

권오상 대표는 마을호텔의 장점으로 ▲스테이 내에서 모든것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숙박비 책정시 부대시설이 있는 업소에 준해서 받을 수 있으며 ▲마을안내와 정보제공 등도 나누어 맡을 수 있고 ▲마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친숙하게 재방문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설운영 팁으로





마을호텔 홍보&마케팅 운영방안 - 명경화(오요리아시아 팀장)

석항트레인스테이는 기차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숙박시설이다. 2013년 영월군이 폐열차를 활용해 조성했지만 적자가 누적되면서 운영을 중단한 이후 2018년말부터 사회적기업 오요리아시아가 운영을 맡아 활성화시키고 있다. 명경화 팀장은 시설운영 실무책임자로서 18번가 마을호텔은



기차객실_가족실/도미토리



기차카페_Coffee & Books



기차식당_점심메뉴





마을호텔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 김용일(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김용일 교수는 마을호텔을 18번가의 전략사업으로 현실화시켜내고 골목길자원박람회 총감독 맡아 민간과 행정, 전문가 집단을 하나로 만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사회적기업가로서 주민과 행정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며 18번가 변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 이날 강연을 통해 김 교수는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 김성중 (주세인트 대표)

김성중 대표는 마을호텔 1호점의 리모델링 실시설계와 브랜드작업을 진행한 디자인 전문가다. 또 골목길정원박람회 아트디렉터로서 현장을 누비며 18번가 골목길 경관을 크게 개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날 강연을 통해 김성중 대표는 단순히 예쁘다고 해서 좋은 디자인은 아니라는 점





마을호텔 어떻게 구성할것인가? - 김용일(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마을호텔 운영에 적합한 협동조합의 형태와 설립절차는 마을호텔은 18번가 내 각각의 상점(사업자)이 연대하여 하나의 호텔을 구성하는 형태임으로 일반 또는 사업자협동조합이 적합하며, 추후 발기인 모임을 통해 사업계획 및 정관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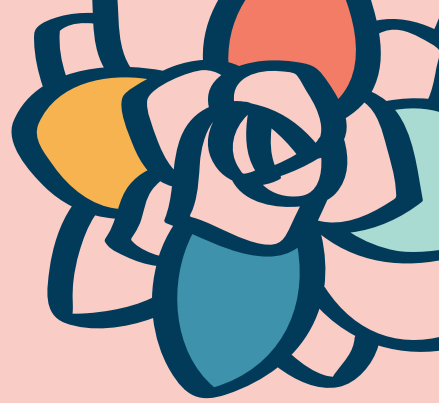












Village Hotel 18st
마을호텔
18번가

발 행 일 2019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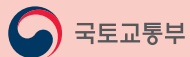
사진설명 김진용

사 진 김진용, 정의동, 이해진

주 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5

전 화 033-592-8486

팩 스 033-592-8487



국토교통부



정선군



정선군



지원센터



마을호텔 18번가